

광주시교육청, 제41회 장애인의 날 맞이 ‘장애 인권 주간’ 운영

관내 유·초·중·고 장애 이해 및 장애 인식 개선 계기수업활동 전개
교육감 서한문 게시 및 배포·학교로 찾아가는 장애 이해교실 등 추진

광주시교육청이 제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오는 19~30일 2주 동안 교육청·지원청·직속기관·전체 유·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장애 인권 주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장애 인권 주간’은 장애 이해 및 장애 인식 개선 활동을 통한 장애공감문화 조성을 위해 기획됐다.

특히 시교육청은 전체 기관과 학교에서 장애 이해와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교육감 서한문 게시 및 배포 ▲현수막 게시 ▲

계기수업 자료 제공 ▲신문 제작 및 보급 ▲학교로 찾아가는 장애 이해교실 등을 추진한다.

또 오는 20일 특수교육 발전과 장애 인식 개선에 기여한 교직원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부 장관 표창(교원 3명, 교육행정직원 1명)과 교육감 표창(장애학생 5명, 통합학급 담임교사 4명, 장애학생활동지원 사회복지무원 3명)

을 전수할 예정이다.

장국국 교육감은 제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로 인한 나와 ‘다름’이 차별이 아닌 하나의 ‘특성’으로 인식돼야 한다”며 “장애 공감 문화 속에서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동등한 학교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윤희기자

함평군 나산면, 거동불편 어르신 안전봉 설치

나산면 지사협·우리동네 복지공동체 재능기부



함평군 나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우리동네 복지공동체는 지난 13일 취약

계층 독거노인가구를 대상으로 ‘노인 안전 맑음’ 사업을 실시했다.

노인 안전 맑음 사업은 독거노인 등 안전 취약가구의 낙상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이동경로 확보를 위해 주택 내 계단과 경사도에 안전봉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십시일반 후원금과 우리동네 복지공동체의 재능기부로 추진됐다.

이날 함께한 정전수 공동위원장은 “복지가 필요한 지역 주민들을 지속 발굴해 안전과 복지 증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김관호 공동대장은 “스스로 해결 할 수 없는 노인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우리동네 복지공동체원들이 재능기부를 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함평=김광춘기자



광양시, 비대면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광양시가 올해 104억 원의 예산으로 진행되는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40개 사업 2,822명) 중 노노케어, 경로당 비품 조사 등 20개 사업 1,860여 명을 비대면·1인 활동으로 전환해 운영한다.

노노케어 사업은 참여 어르신이 취약노인 가정(독거노인, 경증치매 노인 등)을 방문해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안부 확인, 말벗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비대면 활동으로 전환하며, 어르신이 재택근무하면서 유선전화로 취약노인 가정에 정서안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시는 다양한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사업 운용을 위해 올해 전라남도 시장형 사업단 초기투자비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엄마손밥상 2호점’을 운영할 계획이다. 광양=심종섭기자

엄마손밥상 2호점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 참여 가능하며, 반찬(즉석, 절임, 국 등)과 간식(컵과일, 샌드위치, 과일청)을 판매해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신규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이다.

지원 예산은 총 3,000만 원으로, 소규모 매장을 운영하는 시장형 사업단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설보강, 장비구입, 임차보증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근로 능력이 있는 어르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하태우 노인장애인과장은 “코로나19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비대면과 1인 노인일자리 활동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어르신 일자리사업을 창출해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과 소득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심종섭기자

완도군, 어르신 실종 예방 종합관리대책 마련

완도경찰서와 합동, 위치 추적 가능한 배회감지기 등 확대 보급

완도군은 노인 인구와 치매 환자 증가 추세로 실종 어르신이 사망에 이르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실종자 발생 시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지원하고자 완도경찰서와 합동으로 실종 예방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에 332건의 실종이 발생했으며, 이 중 완도군

실종은 8건이다.

이에 군에서는 실종자 확인을 위한 대책으로 치매 어르신의 실종을 사전에 예방하고 실종 후에도 가족의 품으로 빠른 복귀가 가능하도록 지문을 등록하고,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한 손목 부착형 배회감지기와 치매 인식표를 경찰서, 주민복지과와 연계하여 확대 보급한다.



배회감지기 신청은 완도군 치매안심센터(061-550-5811)를 통해 하면 된다. 완도=이민혁기자

**책과 함께
즐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